



patrickstory.ie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는가?

삶이 편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허락하는 **'마법의 지니'**; 하나님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일 것이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희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마도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우뚝 솟은 성당, 영광스럽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 또는 불타는 설교, 영원히 분노하고 항상 처벌할 준비가 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위선으로

슬프게도 왜곡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다음은 성패트릭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하나님이 나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어떤 힘든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가라는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삶을 바꿔놓는 모든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확고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하나님이 선하다면, 그는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성패트릭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진흙 속에 깊이 누워 있는 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분이 와서 나를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삶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 강력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패트릭과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발견했고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알 수 있는 하나님—하나님은 당신보다 어디 멀리에 높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패트릭은 그래서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라고

썼습니다. 그저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 이상으로, 성패트릭과 함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강하시며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진정한 희망과 도움을 찾고 알 수 있습니다.

성패트릭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신도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시골 사람이며, 모든 신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